

오렌지 수입자유화와 日本감귤 산업의 변화

姜志勇* · 高成寶**

The Strategies for Orange Import Liberalization in a Producing Center and National Level

Kang, Ji-Yong* · Ko, Seong-B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he citrus industry of orange import liberalization in Japan and to develop the strategies for orange market opening in a producing center and national level. In a producing center, in order to cope with orange market liberalization,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 (1) making the structural adjustment and improving the infrastructure in Japanese citrus industry (2) producing high-quality products through the intensive management (3) producing low-cost products through the increase in yield per 10a. In a national level, in order to cope with orange market opening, policy programs are as follows: (1) estimating the optimal planted area of citrus which meets its nationwide demand through the production adjustment (2) improving the quality of citrus through variety replacement (3) stabilizing the price of citrus through juice processing.

1. 序

91년에는 오렌지, 92년에는 오렌지과즙을 수입자유화한 일본의 감귤산업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제화·자유화의 격랑

속에서 지금 일본의 감귤산업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떻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봄은 오렌지 수입개방이 짧은 우리에게 아주 궁금한 일인 동시에 대단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 일본의 경우가 여러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 제주발전연구원

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동경라운드 이래 10년간 계속된 美·日 쇠고기, 오렌지관계의 시장개방 교섭이 1988년 6월 30일, 일본측의 일방적 양보로 결말이 났다. 당치않은 농업비판, 財界主導에 의한 농산물시장 개방요구, 일본 정부의 對美 일변도의 소극적인 외교에 의해 타협을 하였고, 그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교섭결과로도 나타났다. 일본 농민의 정치불신은 극에 달하고, 각지에서 자민당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농민의 이념, 농업의 존재의의라는 철학적 과제가 문제시 되고 있으며, 정책과제도 나오게 된다. 그러나 추상적 관념론이나 정책 비판, 정책 요구가 아니라, 감귤 산지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시장개방·농산물 수입 자유화라는 것은 생산지역·산지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의문제기와 함께, 자유화 대응책의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日本 감귤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2. 柑橋類 市場開放의 經過와 收入實績

(1) 市場開放의 經過

日本이 국제경제 사회로의 계획 참가가, 과수산업에 최초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은 1963년 4월 1일의 바나나 수입 자유화였다. 바나나 수입자유화에 의해서 가장 영향은 받은 것은 사과라고 알려져 있다. 사과는 高接更新·改植에 의해 재래품종인 國光·紅玉에서 세계제일인 후지, 무츠, 王林 등 품종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대응하게 됐다. 이어서 자유화 된 것이 1963년 5월 8일의

레몬이다. 레몬 수입 자유화에 의해 瀬戶内海(주: 日本 本州와 四國사이 바다)의 島嶼部에서 재배되고 있던 레몬은 바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고, 그후 어떠한 사건에 의한 수입 레몬의 두절에 의해서 가격이 앙등할 때마다, 방임된 재배과수에서 採收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레이프후르츠는 1971년 6월 30일에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그레이프후르츠의 수입증대에 의해, 夏柑, 八朔 등, 시기적으로 중복되고, 외관적으로도 유사한 품목의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동경라운드 이후, 감귤류 중에서 유일한 非自由化 품목이 된 오렌지, 감귤류 주스, 쇠고기의 세 품목이 日本 농산물 시장 폐쇄성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내외로부터의 공격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1978년 1월 31일, 12월 5일의 中川·스트라우스 교섭, 1984년 4월 7일의 山村·브롯쿠 교섭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시키기로 하였다. 다시 1988년 6월 20일, 佐藤·야이타교섭에서 1988년도 이후의 수입량의 증가 계획과 오렌지는 3년 후, 오렌지 주스는 4년 후 자유화를 주체로 하는 미·일 합의가 성립되며, 감귤류를 둘러싼 미일간의 시장개방 교섭은 결정되었다(표 1-1).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는 국내 감귤산업 방위의 최후의 보루이며, 부진을 한탄하고 있는 日本內 감귤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이후의 대응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

(2) 新鮮果實類의 수입실적

바나나 수입 자유화 前年인 1962년에 있어서의 新鮮果實類의 수입 상황은, 수량에서 9만 5천톤, 금액으로 67억엔정도이며, 바나나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이 그레이프후르츠 자유화 다음 해인 1972년에는, 132만톤, 724억엔에 달하고 있다. 이 10년간에 있어서의

표 1-1 오렌지, 쥬스의 수입량

단위 : t, 쥬스는 1/5농축

년도	오렌지			오렌지 쥬스	그레이프 후르츠
	계	季節통관량	年통관량		
1976	15,000			1,000	
1977	18,000			1,300	700
1978	45,000	22,500	22,500	3,000	1,000
1979	45,000	22,500	22,500	3,000	1,000
1980	68,000	35,000	33,000	5,000	3,000
1981	72,500	38,500	34,000	5,500	4,000
1982	77,000	42,000	35,000	6,000	5,000
1983	82,000	45,500	36,500	6,500	6,000
1984	93,000	48,250	44,750	7,000	수요에 대응한
1985	104,000	51,000	53,000	7,500	할당
1986	115,000	53,750	61,250	8,000	자유화
1987	126,000	56,500	69,500	8,500	
1988	148,000	56,500	91,500	15,000	
1989	170,000			19,000	
1990	192,000			23,000	
1991	자유화			40,000	
1992				자유화	

주 : 1. 계절통관량은 6~8월 통관분

수입동향은, 수입수량과 수입금액이 동시에 대폭으로 증대했지만, 수입단가에 대해서는 하락경향을 겪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후 1985년에 이르는 14년간은, 오렌지 수입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량은 120만톤 내외의 추세이다. 그러나 금액은 1,717억엔으로 1,000억엔이 증대하고 있다. 이 사이의 수입상황은, 수량 포함시세, 수입품목의 변화와 고급화, 단위상승에 의한 금액증대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수량 포함시세, 금액상승의 경향은 1986년 이후 양상이 일변했다. 수량 140만톤, 다시 150만톤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금액은 1,500~1,600억엔으로 감

소했다. 1985년 9월 이전 1달러 240엔 환율이, 130엔대로 엔고(円高)가 진행된 것에 의한 것이다. 결국 수량증대, 단위하락에 의한 금액감소라는 새로운 국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표 1-2).

1972년 이후의 수입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바나나는 1972년의 106만톤을 피크로 하여 1983년까지 10년간은 감소경향을 띄고 있으나, 최근에는 엔고의 영향도 있고해서, 70만톤대의 안정된 추세이다. 레몬은 12만톤, 그레이프후르츠는 20만톤으로 안정적인 수입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렌지는 비자유화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확대정책에 대응하여 착실

표 1-2 신선과실류의 수입실적

단위 : 천t, 백만엔

년도	신선과실계		바나나		레몬		그레이프후르츠		오렌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72	1.320	72.430	1.063	45.482	79	11.665	91	10.279	13	1.408
1975	1.190	90.431	894	48.475	64	14.730	147	17.769	22	3.267
1980	1.159	109.692	726	43.439	101	18.799	135	17.819	71	9.628
1985	1.205	171.682	680	72.129	114	24.065	121	18.780	112	21.793
1986	1.405	157.503	765	63.804	126	16.940	182	21.573	117	16.533
1987	1.482	153.915	775	53.426	128	17.107	205	21.926	123	17.546
1988	1.481	156.675	760	55.539	119	15.868	235	23.645	115	16.335

자료 : 大藏省 「일본무역월보」

히 수입량이 증대하여, 1987년에는 12만톤에 달했다. 그러나 1988년에는 상반기 수입할당량 9만1천톤(수입할당량은 할당실시일로부터 10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이 未消化되었다. 수입할당량의 未消化는, 수량할당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 수입량은 11만5천톤으로 년도 수입할당량 14만 8천톤을 밑도는 상태가 되었다. 그 원인은 캘리포니아산 바렌시아오렌지가, 기후 불순의 영향 등으로 당도가 낮고, 과즙분도 적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레이프후르츠가 순조롭게 수입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금은 수입품이라고 해도, 품질이 나쁘면 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금후의 감귤산업을 생각할 경우,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이다.

비감귤류이면서, 자유화 대응과의 관련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키위후르츠이다. 키위후르츠의 수입은, 1981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수량적으로는 불과 6천톤, 금액으로는 49억엔이었다. 1987년부터는 엔고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1988년에는 5만 7천톤, 154억엔에 달하고 있다. 수입지는 뉴질랜드가 주

이며, 국내산과 공급시기가 다르지만, 밀감 전환작물로서 각광받아 급속하게 新植이 행해지고 있고, 생산량은 5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周年10만톤의 공급체계가 되었다. 따라서 계절시기의 감각의 상실과 포화 등으로 국내산 가격도 급격한 하락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후의 가격동향도 걱정된다.

新鮮果實類보다 더욱, 국내감귤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즙류의 수입동향이다. 감귤류주스의 수입할당량은 1973년 이후 1천톤에 머물러 있었으나, 1977년 이후에는 美·日교섭 때마다 할당량이 확대, 자유화가 실시되고, 수입량은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속에서 1984년산 감귤은 가뭄 때문에 생산량이 200만 5천톤으로 급감하고, 그 해의 과즙수요량에 크게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과잉재고로 조정보관해 왔던 이월량을 방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할당량을 선취하는 형태로 긴급수입을 해야했다. 1985년 오렌지주스의 수입량은 1만 5천톤, 97억엔으로 전년보다 일거에 수량에서 388%, 금액에서 556%로 증가했다.

3. 柑橘危機와 그 對應策

(1) 生産調整에 의한 需給均衡化

농업기본법의 선택적 확대에 의한 정책적 유도, 농업구조 개선사업 등의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서, 밀감의 재배면적은 경이적으로 증대하였다. 1961년 7만 1,100ha의 재배면적은 1964~1968년간은 매년 1만ha를 넘는 면적 증가가 계속됐다. 그 후 新植熱은 진정화되고, 면적증가는 둔화했으나, 1973년까지는 余熱이 이어져서 최고 17만 3,100ha에 달했다.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1964년에는 122만 9천톤으로 100만톤대로 오르고, 1968년 235만2천톤으로 200만톤대, 1972년 356만 8천톤으로 300만톤대와, 4년마다 100만톤씩 급증하였다.

생산량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수요에 뒷받침되어 가격저락은 하면서도 간신히 소화했다. 그러나 1972~1973년 2년 연속 대풍작, 오일쇼크를 계기로 低經濟 성장기로의 轉換에 의한 수요감퇴, 외국산 果實收入의 본격화 등 惡條件 속에서 밀감위기, 바야흐로 농업위기가 불리는 상태가 되었다.

그 대응책의 하나가, 면적삭감을 하므로서 생산조정을 하고, 수요균형화를 꾀하려고 하였다. 1974년에 들어서면서, 전국각지에서 밀감위기들과 생산자대회가 개최되고, 密植園 간벌, 품종갱신, 조기완전적과 등의 생산조정 대책을 검토하고, 결의했다. 이들의 집대성으로서 동년 4월 25일에 밀감위기들과 전국생산자 대회를 개최하고, 20%, 3만 5천ha의 自主減反에 의한 생산조정을 결의하고 있다.

농가의 自主減反이 계속되고, 1975~1978년도의 4개년 계획에서, 민관일체에 의한 [改植等促進緊急對策事業]이 실시되었다. 다시 1979~1981년의 3개년 계획으로 년 7천ha, 합계 2만 1천ha의 [溫州密柑園 전환축진사

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사업실시에도 불구하고, 밀감위기는 호전의 징조를 볼 수 없고, 기간을 1983년도까지 다시 2개년 연장, 계획 면적을 8,600ha추가하였다. 밀감생산 조정사업은, 1984~1986년도는, [감귤생산 재편정비 특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다시 1만ha의 면적 삭감계획을 실시했다. 이어서 1987~1989년도는 [溫州蜜柑園 轉換整備 特別事業]으로서 1만1천ha의 감반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1988년 6월, 오렌지, 오렌지 주스의 자유화가 결정되었으며, 사후 대책으로써 원지재편사업을 하였다.

이처럼 1974년이후, 밀감은 명칭을 바꾸면서도 일관해서 감반에 의한 생산조정을 실시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재배면적은 최고였던 1973년의 17만 3,100ha에서, 1988년에는 10만 1,000ha로, 58%로 감반, 7만 2,100ha 감소했다. 그에 응하여 생산량도 350~360만톤 체제에서, 200만톤 체제가 되며, 일단 감반의 목적은 이룬 것이 된다.

일련의 밀감생산 조정정책에도 불구하고, 1984년산의 一過性 호황 외에는 여전히 과잉·싼 가격이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감귤 생산은 한결같이 브레이크가 없는 채로 후퇴를 겪고, 산업기반의 파괴가 이어졌다. 생산조정 에 의한 생산량감소보다도 한층 급속한 템포로 감귤소비의 감소가 이어진 것에 의한 것이다.

1963년에 있어서의 일인당 연간 과실 구입 수량은 23.8kg이며, 그중 온주밀감이 6.2kg으로 26%였다. 그것이 고도경제 성장기에는 감귤중심의 소품목 다량소비의 경향이 이어지고, 1973년에는 과실합계 54.6kg, 온주밀감 23.1kg, 점유율42%가 되었다. 이것을 피크로 해서 저성장 경제기로 들어서면서 부터는, 급격한 소비감퇴에 의해, 1988년에는 과실합계 36.8kg으로 절정기의 67%, 그중 밀감은 9.0kg, 39%로 감소하고, 점유율도 24%로

표 1-3 果實의 1人當 年間消費數量

단위 : kg, %

종 류	1963년		1973년		1988년		증감지표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73/63	88/73
밀 감	6.2	26.1	23.1	42.3	9.0	24.4	372.6	39.0
하 귤	0.8	3.4	2.2	4.0	1.1	3.0	275.0	50.0
레 몬			0.4	0.7	0.4	1.1		100.0
기타감귤			1.7	3.1	4.0	10.9		235.3
감귤류계			27.4	50.1	14.5	39.4		52.9
사 과	6.6	27.7	4.9	9.0	5.5	14.9	74.2	112.2
바 나 나			5.3	9.7	3.7	10.1		69.8
기 타	10.2	42.8	17.0	31.2	13.1	35.6	166.7	77.1
합 계	23.8	100.0	54.6	100.0	36.8	100.0	229.4	67.4

저하였다. 소비경향은 다품목 소량소비, 고급 품 소비로 전환되었고, 다국적화, 무국적화가 진전됐다(표 1-3).

그렇다치더라도, 1986년 이후, 과실전체, 감귤과 함께 소비감퇴가 점점 줄고 있는 감이 있는 것은, 금후에 한가닥의 희망을 간직한다. 이러한 소비동향은, 금후의 감귤류의 대응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이다.

(2) 品種更新에 의한 高品質化

1961년에 전국의 감귤류 재배면적은 8만 8,632ha이고, 그중 온주밀감이 7만 1,100ha, 80%였다. 그것이 온주밀감 중심의 소품목 다량 소비동향을 반영하고, 1973년에는 감귤류 전체로는 20만 5,379ha로 232%가 증가, 그 중 온주밀감은 17만 3,100ha로 244%나 증가하여 점유율이 84%로 높아졌다.

1973년을 절정으로 하여, 수급 균형화를 위한 생산조정에 의해 온주밀감의 재배면적은 1988년에는 10만 1,000ha로 58%로 감소했다. 이것에 응하여 감귤류 전체로도, 14만 8,820%로 73%나 감소하였다. 또한 온주밀

감의 점유율도 68%로 저하한 것이다. 온주밀감의 급격한 감소, 점유율의 저하는, 품종의 다양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온주밀감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른 과수나 품종을 갱신하였다. 이렇게 하여 온주밀감, 夏柑이 감소하고, 伊子柑, 네이블 등이 급증하고 있다.

감귤류 재배면적의 성쇠를 主産縣別로 보면,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첫번째 그룹은 시즈오카현이고, 1961~1973년간 142%로 비교적 신장율이 낮고, 1973~1988년간은 64%로 급감한 산지이다. 두번째 그룹은 佐賀, 나가사키, 쿠마모토 등 九州各縣이다. 성장기에는 大増植에 의해 342%(佐賀)~402%(쿠마모토)로 급성장하고, 전환기에는 61%(나가사키)~81%(쿠마모토)로 급감했다. 소위 신흥산지이다. 세번째 그룹은 和歌山, 愛媛의 中軸縣이다. 성장기 192%(和歌山), 225%(愛媛)로 중간적인 신장율이지만, 전환기에 들어서서는 90%(和歌山), 92%(愛媛)으로 감소율이 낮다. 第1, 第2 그룹은 폐원화를 중심으로, 타작물로 전환을 꾀한 산지이다. 제

표 1-4 품종재배면적의 추이(愛媛縣)

단위 : ha, %

종 류	1961년		1973년		1988년		증감지수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48/38	63/48
온주밀감	9.680	75.3	22.800	78.8	13.500	50.8	235.5	59.2
네이블	35	0.3	161	0.6	942	3.5	460.0	585.1
닛 柑	2.500	19.4	3.500	12.1	2.130	8.0	140.0	60.9
八 朔			779	2.7	1.030	3.9		132.2
이 예 감			1,580	5.5	8,150	30.6		515.8
기 타	648	5.0	101	0.3	843	3.2	379.6	834.7
합 계	12.863	100.0	28.921	100.0	26.595	100.0	224.8	92.0

3그룹 중 和歌山현은 온주밀감의 감소율이 적고, 의연히 온주밀감 중심이 되고 있다. 愛媛현은 가장 활발히 품종갱신을 행하고, 다양화와 고품질화를 추진한 산지이다(표1-4).

그 愛媛현 내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품종갱신을 하고, 산지의 체질개선을 꾀한 것이 温泉青果農協이다. 温泉青果農協 관내에는 1973년 당시 3.500ha의 감귤원이 있고, 그 중 온주밀감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온주밀감의 도래와 함께 1973년 봄부터 전국에 남보다 앞서서 원지 전환사업을 선행 모든 산지에서 특산품인 宮内伊子柑으로 품종갱신을 실시하여, 1988년에는 온주밀감의 구성비는 24%까지 저하하고, 대신 15%였던 伊子柑이 64%로 증대한 것이다(표 1-5).

품종갱신에 의해서 温泉青果農協은 온주밀감조합에서 宮内伊子柑조합으로 轉身하여, 農마크의 명성을 높였다. 이 품종갱신에 의해서 조합의 판매고는, 1972년도의 50억 7천만엔에서 1984년의 145억 8천만엔과 287%로 증가하여, 우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985년 이후는,

수확직전의 한파에 의한 寒害果의 발생(1985년), 가뭄에 의한 小果의 발생(1986년)이라는 사건으로 재난을 입었지만, 생산량의 증대, 엔고에 의한 수입과실 증대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대체관계가 있으며, 경쟁 관계에 있는 伊子柑, 네이블, 甘夏柑, 八朔 등 中晩柑類의 가격 향상이 계속 여의치 않고, 販賣高도 감소 경향에 있다.

이처럼 오렌지 자유화 결정은, 다양화 시대의 대응품목인 中晩柑類와 통합 시기적으로 경합하는 것에서, 산지체제확립의 選擇의 폭을 적게하고, 금후의 방향을 짓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3) 주스 착즙에 의한 價格 安定策

원래 日本의 과실 가공사업은, 청과시장에서 판매하기에는 부적합한 大果·小果, 傷害果, 低品質果 등을 처리하는 기능을 해 왔다. 밀감에 대해서도 당초의 통조림 가공, 주스 제조사업은, 시장가치가 없는 생산물에 부가가치를 부여하여, 시장성을 갖게 하는 것에

표 1-5 품종갱신 전후의 품종별 재배면적

단위 : ha, %

품종	1973년		1988년		증 감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 성 비
조 생 온 주	520	14.8	265	9.7	△ 255	42.7
보 통 온 주	2,382	68.1	377	13.9	△ 2,005	15.8
온 주 계	2,902	82.9	642	23.6	△ 2,260	22.1
궁내이에감	110	3.1	1,575	57.9	1,465	1,431.8
보통이에감	402	11.5	178	6.5	△ 224	44.3
이 예 감 계	512	14.6	1,753	64.4	1,241	342.4
네 이 불	15	0.4	115	4.2	100	766.7
柑 夏 柑	35	1.0	25	0.9	△ 10	71.4
팔 삭	20	0.6	27	1.0	7	135.0
기 타	16	0.5	20	0.8	4	125.0
중 만 감 계	86	2.5	187	6.9	101	217.4
감 귤 계	3,500	100.0	2,582	94.9	△ 914	73.8
키위후르츠	0	0	140	5.1	140	-
계	3,500	100.0	2,722	100.0	△ 778	77.8

주 : 温泉靑果農協管内의 實績

의의가 있었다.

생산량이 증대하고, 본격적인 과잉·價格低迷에 의한 밀감위기의 단계로 돌입하고, 가격안정·수요창출로서 가공사업의 기능이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1968년 밀감 200만톤 시대돌입에 따르는 싼 가격을 계기로 하여, 주스착즙에 의해 시장출하의 시기적 조정, 연차별 풍흉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1970~1974년간, [과실가공 수요확대 긴급대책사업]으로서 밀감의 주산지인 14현, 사과 2현에 국가의 보조로과즙공장을 건설했다. 전국에 밀감착즙 기계설비 대수는 302대, 시간당 착즙능력 688톤의 규모가 되었다. 그중 愛媛縣은 52대, 144톤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설비완성에 의해, 1955년대는 생산량이 불

과 3%, 3만톤 정도 착즙하였으나, 가격이 폭락한 1972년부터 30만톤을 넘었다. 밀감생산량 급증·밀감위기에 의해서, 착즙률·양이 함께 급증하고, 1979년에는 361만8천톤의 생산량 중 28%, 100만 7천톤으로 절정에 달하고 있다. 愛媛縣 靑果連의 과즙공장도, 2교 대체제에 의한 24시간 작업으로 대응해 왔다.

한편, 日本 국내의 주스과즙의 수요량은, 5분의 1 농축으로 연간 6만톤(원료환산 60만톤)정도이며, 수입과즙의 할당량도 매해 확대되어, 1979년에는 5만톤을 넘는 과잉재고를 안아,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3만~4만톤의량을 조정보관하는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는 사태가 되었다. 그러나 1984년산 밀감생산량이 200만5천톤, 전년대비 70%로 격감하고,

맛이 좋았던 것도 있어서, 착즙률 8%, 착즙량 16만 1천톤이 되어, 과잉재고를 一掃했음 뿐만 아니라, 1985년산은 과즙 부족으로 인하여 차년도 수입할당량을 선취하여 긴급수입하는 사태에 이른다. 자유화 저지투쟁이 한창일 때의 긴급수입으로 인해, 생산량의 절대량이 감소하고, 그 위에 생식중심이 되었을 때의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 후에는 또 다시 생산량 회복, 夏柑 등 中晩柑類의 싼 가격에 의한 착즙의 증가, 수입할당량 확대에 의해서 과잉재고가 되며, 1987년산에 대해서는 조정보관을 실시해야 했다.

이처럼 밀감 생산량의 풍흉차는, 주스 가공사업으로 수렴되어, 착즙량 증감에 의해서, 주스사업은 日本 국내 生果의 수급조정을 꾀하는 안전판적, 저수준적인 생리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주스사업은 단기적으로는 生果공급량 조정으로, 생과 시장상황의 변동폭을 적게 하며, 원료가격보증에 의해서 가격폭락을 막아주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품의 조정보관에 의해서, 연차별 가격변동을 완화한다는 경제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가공원료 과실가격안정 대책사업]에 의한 과즙원료용 밀감의 가격보증제도이다.

주스착즙에 의한 가격부상, 가격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감 생산산업 기반은 파괴되고, 지역경제 地盤沈下는 진행돼 왔다. 국내생과 시장상황, 수입과즙가격 사이에서 가공원료 생산이 단독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체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브라질처럼 평탄지로, 기능력을 구사하고, 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日本의 입지조건·경제조건으로는, 주스 원료생산에서는 경영이 되지 않는다.

愛媛縣(애히매현)청과연이 낮은 비용에 의

한 원료생산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1982년부터 실시해온 「溫州 밀감 가공원료轉用園」 제도는, 희망자가 적고, 또 자유화라는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여, 1988년을 기점으로 폐지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감귤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事後的으로 보면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한 면도 있고, 비관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점 및 그 국면에서는, 당사자의 選擇의 폭은 적고, 암초를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수 밖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4. 오렌지·과즙 收入 自由化 決定과 政府의 事後 對策

1988년 8월 24일, 정부·자민당은 총액 1,060억엔의 예산규모로, 「오렌지 및 오렌지 과즙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대책」을 결정했다. 그 골자는 ① 감귤의 생산성, 품질의 향상(220억엔), ② 감귤과수원 등 정비재편 추진(540억엔), ③ 과즙원료용 감귤의 가격안정대책(250억엔), ④과즙공장 설비의 합리화, 근대화, 정비재편 등(40억엔), ⑤ 수요확대 등(10억엔)이다.

이러한 사후대책 중, 예산액, 대응 속도로부터, 「감귤과수원 등의 정비 재편」이 중심적인 사업이 되어, 그 실시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작하는 것으로 해도, 모든 작물이 과잉·가격저하 속에서, 만들것이 없는 상태이고, 이미 낙엽과수예의 전환으로는, 식재의 시기를 놓치고 있었다. 암중모색, 혼란속에서 확실한 대응책도 서지 않은 채 감귤 나무 벌채만이 선행하는 결과가 되었다.

(1) 밀감농원의 再編成事業

자유화 대응으로써 실시되었던 (밀감園 等의 再編整備)는 온주밀감원 2만 2천ha (1988년산 결과수 면적의 23.2%, 재배면적의 21.8%) 中晚柑園의 4천ha (1985년 생산 재배면적의 8.4%)의 벌채, 전환에 의해 수급균형을 꾀한다는 것이다. 보조단가는 10a당 폐원·식림의 경우, 밀감 30만엔, 中晚柑은 10만엔, 게다가 밀감은 채벌년도에 의해 5만엔의 차이를 두고 있고 집중가산제로 전작물 30%이상인 경우 2만5천엔, 40%이상 5만엔, 그 위에 전원전환가산이 10만엔이다. 단지 8년간은 작물을 재배해서는 안된다(표1-6). 다른 작물로의 전환의 경우는 10만엔, 다른 과수로의 전환은 18만엔이고, 채벌 후 방치해서 폐원화하면 보조단가가 높고, 영농의욕을 갖고 다른 것으로 전환하면 단가가 낮아지는 완전히 모순된 계획이다. 확실히 밀감 퇴치 작전이다. 1988년 10월27일, 밀감전환 목표면적2만2천ha의 府縣別 배분이 행해졌다. 배분은 일률적으로 되지않고 1988년산 결과수면적비율 40%, 1984년-1987년산 노지밀감 평균도매가격 비율 30%, 1988년산 일반조생면적비율 20%, 1984년-1987년산 평균가공원료 발송비율10%에 의한 요소배분으로 했다. 단 일률적배분에 대해서는 90-110%의 범위에서 조정을 실시하였다. 府

縣別로 보면, 靜岡 (시즈오카)20.8%, 山形 (야마구찌)20.9%가 최저그룹, 福岡 (후쿠오카)25.5%, 大阪(오오사카)25.4%, 香川(카가와), 佐賀(사가)24.7%, 愛知(아이찌)24.5%가 최고그룹이다.

쌀농업확립 대책에 의한 쌀 감반정책이 다수납득과 타협을 얻기쉬운 적국 획일의 일률감반 방식이 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완전히 자주성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가 되었다. 中晚柑類에 대해서는 목표면적의 府縣배분은 행해지지 않았다.

(2) 산지재편 整備事業의 實施現況

구체적인 실시 요강도 미확정인 채, 1988년 가을 경부터 각 산지는 사업실시를 향해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전국 각부현의 실시계획 성과집계에 의하면, 밀감은 거의 목표면적에 근접해 있고, 1기분 (1988년)으로써 1만 5천ha, 목표면적이 약70%이다. 실시 시기가 빠른만큼 조성단위가 높기 때문에 초년도에 집중된다. 또 1기분에 대해서 사업실시 내용을 보면, 폐원, 植林이 약1만1천ha, 이것 또한 실시계획 면적이 70%를 점유하고있다. 결국 목표면적의 50%는 초년도에 폐원 혹은 植林이 되어 밀감 농원이 소실되었다는 것이다. 사업보조단가와 유망한 후작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6 전면전환가산 한 경우의 보조단가표

단위 : 천엔/10a

시기구분	기본		전환률 30% 이상		전환률 40% 이상	
	~20년생	21년생~	~20년생	21년생~	~20년생	21년생~
벌채시기 I	460	430	485	455	510	480
벌채시기 II	410	380	435	405	460	430
벌채시기 III	360	330	385	355	410	380

中晩柑의 실시 계획성과 결과는 4천ha에 대한 4,700ha, 약 120%라는 목표를 상회한다. 멀지않아 3,300ha, 70%는 초년도에 실시한 계획이 된다. 甘夏柑, 八朔, 네이블등의 가격하락 때문에 보조의 실마리로서 채벌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愛媛현의 밀감 전환목표 면적은 3,040ha로 결정됐다. 1988년산 결과수 면적의 23.0%, 재배면적의 22.5%로, 비율로써는 거의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면적으로는 전국 최고이다. 부현별 배분요소 중에서 결과수 면적, 일반조생면적비율은 전국수준, 도매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고 POM(쥬스상표)가 널리 알려져 쥬스가공 체제가 완비되어 있지만 가공원료용 발송비율이 높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전국 평균수준이 된 것이다.

1988년 10월25일 愛媛현에서는 전국 부현별 목표면적 배분에 앞서서, 縣 협의회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 촉진방법에 대해 협의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밀감 퇴치로 끝나게 하는 것만이 아닌 적지적산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인 산지재편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縣內産地別 배분은 행하지 않고, 경영전망과 조성금액을 감안했다. 순수한 경제적판단에 근거한 자주적 회망에 의한 성과방식이라는 것으로 결정했다. 각 산지에는 각각 지역의 사정도 있고 해서, 강제적 기계적 배분이 아닌, 자주적 주체적인 산지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愛媛현이 이러한 대응책을 취한것도 감귤류의 적산지이고 과수가 農業組生産額 1.654억엔 중 458억엔으로, 28%를 점유하고 있는 중심적인 작목(1987년)이기 때문이다. 愛媛현에서는 농업 이외에 취업할 기회가 적은 지역이 많고 감귤류를 채벌해도 그 땅에 식재할 유망한 대체작물이 없기 때문에 감귤산업을 중요한 地場産業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사정에 의한 것이다.

현내의 성과결과는 2,200ha로 목표면적의

72.4%, 그 중 1期分이 1,884ha로 목표면적의 62.0%, 내역은 폐원, 식림이 84.6% 다른과수 11.8%, 타작물 3.6%로 전국과 거의 같은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八幡兵市(재배면적1.420%)가 3.4%, 中島町(750ha) 4.0%, 伊方町(510ha) 7.8%, 吉田町(140ha) 8.6%로 전환율이 낮았다. 이것들을 모두 전국 굴지의 유명산지이며 감귤專業地域이다. 그것들에 대해 재배면적 100ha 이상의 市町村에서 전환율이 높은 곳은 中山町(150ha) 64.9%, 青海町(140ha) 40.2%, 小松町(120ha) 34.5%, 丹原町(200ha) 30.4%이다. 모두 입지조건이 나쁘고 따라서 품질적으로도 떨어진 전후의 신흥산지이다.

이와 같이 명품 산지에서는 본래적인 산지 재편을 피하면서, 고품질 상품생산에 철저하는 한편, 주체적이고 특색있는 산지형성으로 살아남을 것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이 나쁜 산지에서는 밀감경작을 단념하고, 일부 분은 낙엽과수로 전환을 피하면서도 대응책이 없는채로 植林, 폐원이 되고 있다. 자주성과 방식은 적지는 남기고 열등지는 도태한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식림, 폐원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전환작물도 확실한 장래전망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화의 영향으로써 무엇보다 중시해야만 할 것은 가격 불안정에 의한 고용기회의 상실, 지역경제의 지반침하, 지역의 불활성화이다.

(3) 쥬스사업대책

수입자유화에 따른 대응책의 하나가 과즙원료용 감귤의 가격안정 대책제도의 개정이다. 현행의 가격보전제도는 1972년도 부터 그레이프후르츠 수입자유화의 보상으로써 창설된 것이고 1987년산의 경우 보증기준가격(愛媛縣은 kg당 42엔 38전)과 최저기준가격(33엔 50전)의 차액의 90%, 8엔 40전이 생산자

보조금이다. 개정 후는 보증기준가격은 현행 수준을 기준(42엔38전)으로 하고 새로운 수입 가공품가격에 맞는 원료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한 목표거래가격(28엔48전)을 설정하고, 보증기준가격과 목표거래가격의 차액의 100%를 특별보조금(13엔90전)과 통상 보증금(8엔40전)의 합계액(22엔30전)이 생산자보조금이 된다. 결국 현행 제도는 특별보전이 덧붙여진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1987년-1988년 2년간 평균국내 가격이 1kg당 460엔에 대해 수입품은 307엔으로 3분의2 라는 가격차가 있다. 100% 과점의 신설과 수입할당량 확대, 국내산과의 혼합규제적용 제외 및 철폐를 고려한다면 자유화 후에는 유스사업이 밀감가격이 어느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명백하다.

유스수입자유화에 따른 또 하나의 대응책이 과점공장의 설비합리화, 근대화, 재편정비 등이 있다. 1970년-1974년도, 과실가공수요확대 긴급대책사업에서 신설된 14현의 밀감 착즙공장은 밀감원지 재편정비사업 종료 후의 생산량 180만톤, 그 중 과점원료량 30만톤 체제, 유스수입 자유화상태 하에서는 공장조업도의 저하에 의해 경영채산이 과제가 되고 과잉착즙시설의 철거 등 전국적 시점에 선 재편정비의 근본적인 합리화에 의한 체질개선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필요성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폐쇄공장으로 지정되면 총론찬성, 각론반대가 된다.

1989년 3월 28일, 밀감과점공장의 재편정비, 합리화에 관한 기본지침을 협의하기 위해 「밀감과점대책협의회」가 처음 개최되었다. 다른 부현에서 집합을 포함해서, 1공장당 원료밀감 착즙량을 년평균 1만5천톤을 최저수준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달할 전망이 없는 공장은 착즙부문을 대폭으로 축소 혹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식품가공장 이라든지 다

른 부문으로의 전환, 다른 공장으로서의 원료 거래의 가능성을 찾고있다. 최저 수준에 비춰 보면 남는것은 반인 7개의 공장이 된다.

이러한 과점공장이 재편정비, 합리화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금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감행하지 않으면 현재 한국에서 수입하는 간밤(剝栗)과 같이 농협계공장이 조업도확보와 원료의 경제성을 위해 국내생산원료를 사용하지않고, 경쟁적수입에의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가 될 지도 모른다.

또 수입오렌지과점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고품질과점의 제조, 고부가가치과점의 개발 등 과점품질의 향상을 꾀하는 실험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과치, 하등품처리하는 가공사업도 자유화시대를 맞아 품질향상이 과제이며, 그로 인해 원료품질향상이 요구되게 되었다.

5. 감귤산지의 자유화대응

(1) 산지재편과 기반정비

1974년 이후 계속된 일련의 밀감 생산조정사업의 마지막인 오렌지와 과점수입자유화 결정, 그 사후처리대책으로써 밀감 농원들의 재편정비는 감귤산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산지의 황폐화에 한층 박차를 가한 것 같다. 그러나, 각 산지는 대국적으로 정책에 저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연하게 합리적인 대응책을 선택했다. 즉, 우수한 산지에서는 감귤산지에서의 살아남을 선로를 선택하고, 조건이 나쁜 산지에서는 감귤작을 단념했다. 또 동일산지에서도 부적지는 정비하고, 적지는 남겨 간다라는 적지적작의 원칙에 따라 산지체제의 재편정비를 꾀하고있다.

이와같이 생산규모, 산지규모 축소의 과정 중에서, 완만하면서도 강하게 우등지는 남기고 열등지는 도태해가는 방향이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입지조건 이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집단적 원지 중 우등지가 무계획적으로 탈락해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대응책으로 산지내의 입지조건이 좋은 재배지는 벌채, 방임에 의해 황폐시키지 않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재배하도록 하고 입지조건이 나쁜 재배 부적지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간다라는 농지정비체제, 농지유동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소유권, 경작권의 범위를 넘어서 산지체제에 따른 보존의 시점에서 매매, 교환, 대차에 의한 농지이용권의 유동화에 따른 조정이다. 이 사업의 실시는 지역의 농협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금후 농협에 있어 최대 중요 과제이고 최대 중요 기능이다. 결국 농협에 의한 농지관리의 주체적 기능의 발휘이다.

남은 농지들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기반정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수 재배는 토지이용형 농업이지만, 고령자영농, 고품질시대에는 시설형 농협에 가까운 감각과 경영방법이 요구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반정비를 실시하고 자본집약적·노동집약적 경영을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운반노동, 관리노동의 경감을 피하기 위해 간선노동·원내작업도의 개설·모노레일(モトレール)의 부설 등 도로망의 완비이다. 두번째로는 중노동의 경감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의 시점까지도 시비(비료주기), 방제의 가능, 다목적 스프링클러(スプリンクラ-)의 설치이다. 세번째는 과수재배에서는 과수의 수목 바로 그것도 중요한 생산기반으로 그 수목이 다시 젊어지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다. 1972년-1973년에 시작된 밀감위기 이래 이미 15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고 이 기간은 높은 접목에 의한 품종갱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새로운 나무

는 별로 심지 않았다. 그 결과 경영자 만이 고령화 된 것이 아니라 樹體도 고령화 되었다. 그것이 단수와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改植으로 원지가 다시 젊어지도록 하는 후계수의 육성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경영집약화에 의한 고품질 생산

감귤작경영에만 한하지 않고, 금후의 경영 대응으로써 규모확대, 저비용생산이 국제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말한다. 벼농사 경영과 대비해서 생각할 경우 밀감작 경영은 수작업노동이 많고 생산물이 품질간 가격차가 크고 규모의 장점이 작다고 하는 특성이 있다. 밀감 1차 생산비(1987년산 愛媛현 결과) 중 노동비가 60%를 점유, 농기구비는 겨우 6%에 불과하다. 또 년차별 추이에서는 노동비가 절대액, 구성비율과 함께 상승하는데 대해 농기구비는 절대액, 구성비율과 함께 저하해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 쌀은 노동비 40%, 농기구비 34%이다. 년차별로는 노동비가 액수, 비율과 함께 감소하고 있고 농기구비가 액수, 비율과 함께 증대하고 있어서 밀감과 대조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확실히 쌀은 기계로 만들지만 밀감은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품질(크기, 광택, 과일형, 착색, 맛=당산)에 의한 가격차가 크고 최고, 최저의 차가 4-5배이고, 10배에 이르는 것도 적지 않다. 밀감인 경우 당도 10도를 경계로 해서 극단적인 가격차가 있고 가격차 뿐만 아니라 당도 10도 이하의 것은 가격도 매겨지지 않는다는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쌀도 품질간 가격차가 생기는것 같지만 밀감만큼 현저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특성에서 경영규모를 확대해도 규모의 장점이 나타나기 힘들다. 즉 기계작업이 작고 수노동이 많기 때문에 규모확대에 의

한 단위당 투자액, 상환액의 경감은 되지 않고, 작업효율의 향상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오히려 규모확대에 의한 영성한 경영은 품질의 열등화를 초래하고 가격저하에 의한 단점만 발생한다. 伊子柑의 경우 출하규모 35-45t(1.5ha정도)까지도 가격이 상승하지만 그것을 넘으면 큰 시세 변동이 없고 생산량이 많을수록 저하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고품질시대의 감귤경영은 가족노동력의 적합한 적정규모를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것이다. 감귤경영의 적정규모로써는 가족노동력 1인당 1ha, 3명의 전업경영을 상정해도 3ha정도이다.

1987년에 있어 日本의 평균 연간 실질노동시간은 2,111시간으로 유럽과 미국 여러 나라보다 300-520시간 많아서, 노동성은 1988년도부터, 5년간 목표로 해서 1800시간 노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1987년 밀감 10a당 노동시간은 199시간, 伊子柑 148

148시간(愛媛현의 결과)이고, 급격한 노동시간단축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쌀 농작의 목표면적으로써, 基幹노동력 1인당 10ha, 부부로 20ha, 현 상태의 1ha에서 15ha정도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평상시에는 부부 2인에게 단기적으로는 20ha, 중장기적으로는 50ha라고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적정규모의 원지에서 大律4호- 神川현, 靑島溫泉- 靜岡현, 南柑20호-愛媛현, 사가만다린-佐賀현, 金峯-熊本현 등, 각 산지에서 장려되고 있는 온갖 고당계품종으로 새로 심고 산지특성을 발휘한다. 수체의 젊음을 되찾기에 의해, 연속 결과시켜, 고단수를 유지한다. 灌水(관수)시기의 엄수, 멀칭의 사용 등에 의한 물관리의 철저등으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공업제품에서 보이듯이 신선한 고급품은 국산, 저장성있는 하등품은 수입이라는 패턴을 형성해

표 1-7 감귤류의 품질간 가격차

단위 : 円, %

年産	보 통 운 주				이 예 감			
	최고	최저	차액	배율	최고	최저	차액	배율
1978	115.81	25.57	90.24	453	279.91	99.59	180.12	281
1979	55.93	17.46	38.47	320	238.48	99.52	138.96	240
1980	91.20	18.87	72.33	483	239.02	85.75	153.27	279
1981	136.86	34.35	102.51	398	298.96	58.10	240.86	515
1982	80.67	18.87	61.80	428	252.49	75.58	176.91	334
1983	84.17	15.81	68.36	532	230.69	51.14	179.55	451
1984	158.73	36.70	122.03	433	312.49	77.36	235.13	404
1985	141.25	36.27	104.98	389	270.89	29.34	241.55	923
1986	102.40	13.51	88.89	758	209.55	83.34	126.21	251
1987	47.18	7.93	39.25	595	158.98	11.23	147.73	1,415
1988	101.28	16.71	84.57	606	220.33	29.87	190.46	738

자료 : 溫泉靑果農協의 實積

주 : 보통운주는 12월 共計, 이예감은 2월 公計

표 1-8 이예감의 출하규모별 가격차

단위 : %, 人

출하규모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t미만	76.2	69.7	64.2	77.3	52.6	65.1	59.3	54.6
1 ~ 5	88.5	84.7	79.2	89.3	72.4	81.0	77.5	73.8
5 ~ 10	95.1	93.1	90.3	96.4	86.3	91.3	90.0	85.5
10~15	99.8	97.7	96.0	99.1	95.1	97.9	95.6	92.8
15~20	100.4	101.1	100.1	102.4	101.3	100.3	101.4	99.9
20~25	103.5	104.4	104.4	101.2	107.9	100.3	99.6	100.8
25~30	103.5	103.6	103.1	102.9	106.9	101.8	103.2	104.6
30~35	102.0	104.1	104.7	102.5	110.0	105.5	105.7	106.6
35~40	103.8	109.4	107.7	104.8	113.7	107.7	108.3	107.7
40~45	105.3	107.2	106.9	104.5	113.2	103.3	110.7	110.2
45~50	105.0	107.0	111.5	106.0	114.6	111.8	108.5	102.7
50~55	108.2	106.1	112.1	108.3	119.2	114.5	106.3	109.9
55~60	112.0	108.4	110.1	104.2	101.7	110.7	109.5	115.1
60~80	102.2	104.7	109.4	105.1	116.4	107.9	108.0	108.8
80t이상	102.5	108.0	110.1	99.6	108.8	104.6	101.5	108.9
평 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하자수	3,235	3,329	3,392	3,220	3,201	3,167	3,101	3,014

자료 : 温泉青果農協出荷者の 실적

야한다.

이와 같이 농지집적에 의한 규모확대는 고품질화로 자유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하고 있는 감귤경영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 현재 자유화결정 후에 실시한 조합원 의향조사

의 결과는 현상유지가 과반을 점유, 확대될 희망은 적다(표1-9). 1988년 7월, 현재의 宇和青果농협이 실시한 조사결과는 확대희망 6.6%, 현상유지 64.4%, 축소희망 29.0%이고, 1988년 8월 15일, 농림수산성에 의해 실

표 1-9 금후의 경영규모지향(경영면적별)

단위 : 人, %

규 모 지 향	1ha 미만		1 ~ 2ha		2ha 이상		합 계	
	인수	구성비	인수	구성비	인수	구성비	인수	구성비
확 대	58	3.6	60	7.1	31	8.7	149	5.3
현 상	794	49.8	458	53.9	190	53.1	1,442	51.5
축 소	217	13.6	202	23.8	111	31.0	530	18.9
이 농	283	17.8	62	7.3	18	5.2	363	13.0
불 명	242	15.2	68	7.9	8	2.2	318	11.3
합 계	1,594	100.0	850	100.0	358	100.0	2,802	100.0

자료 : 温泉青果農協「組合員意向調査分析結果」, 1988년 11월 10일

주 : 1988년 7월 조사 실시

시된 장래의 증감 지향조사에 의하면 노지(露地)은주밀감인 경우 증가 12.0%, 현상유지 46.0%, 감소 42.0%로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또 일부 대규모 농가에서 농지집적한 경우, 규모축소 없이 이농한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대규모 농가가 점유해 있는 경우 지역전체로써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새로운 난문제가 파생하게 된다.

3) 單收증가에 의한 저비용생산

자유화시대의 농업생산대응으로써 고품질, 저비용이 일종의 슬로건으로 게다가 마치 기성사실처럼 선전되고 있다. 특히 저비용 생산에 대해서는 쌀은 토지기반정비, 생산자재 가격인상을 전제로 3할 절감, 5년 후에는 2분의 1로 절감(1986년산 현미60g당 1万9,735엔을 1万엔에), 작업·경영단위의 확대, 신기술, 신품종의 개발, 보급 등에 의해 3할 정도의 절감이 제언되고 있다. 愛媛현에서도 쌀은 규모확대(모델규모 7.0ha)와 기술혁신에 의해 3할 절감, 감귤류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가격형성을 목표로 3할 원가절감(모델규모 3.0ha)이 제언되고 있다. 그러나, 고품질과 저비용은 일반적으로는 서로 모순된 개념이다. 고품질 생산을 추구하려고 하면 원가는 상승하고 저원가생산을 목표로 하면 품질이 저하한다는 이율배반의 관계에 있다. 그 점에서 제조방법의 발명, 개선에 의해 비약적으로 품질이 개선되고, 원가절감의 가능성 있는 공업제품과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틀리다.

고품질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비교적 명백하고 달성을 위한 과정도 명확하다. 그러나 저비용에 대해서는 자유화 대응책으로써의 유효성, 저비용의 의미, 내용, 달성방법 등 불명확한 면이라든지 문제점이 많다.

우리나라 입지조건, 경영·경제조건에 있어서 예를 들어 브라질과 원가 하나만 생각해서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결국 감귤작에 있어 일본적 저비용은 품질과의 상대적 관계內에서 달성해야한다. 이 두개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추구하고 달성하는 것이 아닌, 고품질, 저원가라는 일체개념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저비용은 단위 면적당이 아닌, 단위생산량당 경영비이다. 따라서 그 달성방법은 단위면적당 투입물재량(투입물재비)을 감소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효율까지 투입을 증가시키고, 單收를 증가하는 것이다. 품질간 가격차가 큰 감귤류에 있어서는 單收도 단지 단위면적당 수량이라는데 그치지 않고 열등품질에 대한 가공량을 제외한 시장출하용 정품의 양이어야한다.

이와같이 單收의 증가는 고품질화에 의해서 정품률을 높이고, 이것이 저비용화 하게 된다. 투입물재량의 절약이 아닌, 증가에 의해 單收가 증대하고, 單收의 증가는 과일껍질을 부드럽게하고, 과일형을 좋게하게하여, 정품화률을 높이고, 고품질화한다. 이렇게해서 고품질생산물의 單收가 증대하고, 저비용생산이 달성되는 것이다. 고품질, 저비용, 單收증가를 통해서 일체개념으로 동시에 달성되는 것이다.

이상 감귤산지의 자유화 대응으로써 생산재편과 기반정비, 경영규모확대가 아닌, 경영집약화에 의한 고품질생산, 單收 증가에 의한 고품질생산, 單收 증가에 의한 고품질 저비용의 일체적 추구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모든 시책을 과수작, 야채작, 화훼 등의 원예 부문에만 한하지 않고, 경종부분에도 타당하며, 국제화시대의 고도성숙사회에 있는 日本 농업의 장래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 인용 및 참고문헌 -

- 1) 강지용외, 「감귤진흥 장기발전계획 연구 보고서」, 제주대학교, 1991. 2.
- 2) 강지용, "오렌지 수입개방에 따른 일본 감귤산업의 변화와 대응", 『제주의 농업과 경제』 창간호, 1994. 11.
- 3) 강지용·고성보, "시설감귤의 수요분석과 적정생산규모에 관한 연구", 『아열대농업연구』 제12권,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1995.12. p. 121.
- 4) 강지용·고성보, "수입오렌지가 제주감귤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주발전연구』 1권1호, 제주발전연구원, 1997. 12.
- 5) 고성보, 「WTO체제하의 감귤수급안정 정책의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97-P s-1, 제주발전연구원, 1997. 12.
- 6) 농림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각년도
- 7) 농촌진흥청, "오렌지·감귤류 수입자유화 영향분석", 1997. 8.
- 8) 농촌진흥청, "칠레산 포도 수입에 따른 영향분석", 1997. 2.
- 9) 麻野尙廷 『귤산업과 농협-산지처 구별의 이론』, 농림통계협회, 1987년6월, p. 23
- 10) 『일본경제신문』 1989년 3월21일
- 11) 北川博敏 『오렌지, 오렌지과즙 자유화와 감귤농가의 대응(2)』, 『농업 및 원예』 제64권 제2호, 1989, pp. 19-22.
- 12) 北川博敏 『국제화시대의 과수전략』 『농업과 경제』 임시증간, 1989년 pp. 91-99
- 13) 坂本慶一編著 『인간에 있어 농업이란』, 學陽書房, 1989년, p. 2.
- 14) 『일본농업신문』, 1989년, 4월 20일.
- 15) 『愛媛신문』 1989년, 5월 18일.
- 16) 麻野尙廷 『과수농업에 있어 국제화와 농협』, 山本修, 武内哲夫共編著 『농업협동조합의현대적제상』, 明文書房, 1988년 3월, pp. 108-109.